

# 춘천지방법원 2018. 4. 13. 선고 2017고단1350 판결 협박,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 음란)

##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

사건	2017고단1350 협박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 매체이용음란)
피고인	A
검사	최희정(기소), 권오장(공판)
변호인	변호사 B(국선)
판결선고	2018. 4. 13.

#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  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 
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죄사실

##### 1. 협박

피고인은 피해자 C(여, 15세)와 SNS인 D를 통해 연락하던 사이였다.  
피고인은 2017. 8. 3. 00:00경 춘천시 E아파트 102동 7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, 피해자가 SNS상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나 속옷을 입은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D 계정에 올렸던 것을 구글링을 통해 수집한 후 피해자의 SNS로 연락하여 위 사진을 공유시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과 관련하여, "내가 웬만하면 안이럴려고 했거든 ○○아?? 선택권이 두가지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리던가 내 노예하던가, 대답 안할거야??, 니가 기분 더럽게 했거든 니가 원하는 대답은 나중에, 언니 F학교 다니는거 맞지? 알고 묻는거니까 놀라 지마, 대답 앞으로 삼분 안에 안하면 언니한테 말하고, 이방 누구방인지 알겠지 언니 는? 이 속옷도? 빨리 대답해 그니까. 너 아무리 머리 굴려도 답은 둘 중 하나야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던지 아님 노예하던지"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

다.

## 2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유시키고 "나는 너 보기만 불려고 했는데 너가 날 화나게 했어, 조건은 6개월, 그러면 아무일 없을거야, 어차피 6개월 동안 걸레처럼 쓰다가 버릴거니까, 갖고 싶어, 너랑 했던 야한 말들 다 하고 싶어, 화풀면, 판새끼 판 자지 보면서 흔들 게?"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# 1.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

##### 1.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

##### 1.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(증거목록 순번 3)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283조 제1항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, 벌금형 선택(피 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.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, 수사기관에서부터 곧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. 판시 범행에 그쳤고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 피고인은 초범이다.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)

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#### 1. 이수명령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

### 판사 조정래